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 063-220-2410 ~ 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음 3월 11일)

제17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동남아 관광객 유치 총력

중국 '한한령'으로 관광시장 다변화 불가피
현지 관광설명회 등 모든 활동 동남아로 변경
제주도 사례 벤치마킹해 국내관광객도 유치

전북도가 중국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시장규모 다변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들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관광시장의 다변화,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관광객 유치, 그랜드 세일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개별관광객 확대, 수학여행단 등 국내관광객 대상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몇 년 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집중해왔다.

이는 2012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1위로 우뚝 섰고 수치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50%에 육박하는 큰 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으로 해외관광시장 다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 상반기 중국 현지에서 계획했던 관광설명회, 관광박람회 등의 모든 활동을 동남아 및 무슬림 시장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도 관광마케팅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때도 그렇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치솟는 시기의 홍보활동은 의미가 없다"며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및 무슬림 지역에서의 마케팅을 통해 해외관광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 관광부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방문해 스포츠, 단풍, 스키, 한류드라마 촬영지 등과 연계된 관광 상품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태국에서는 한국마이스협회 김응수 회장을 만나 KT&G아시아 청년창업포럼 유치를 확정하고 3월30일부터 5일간 남양에서 아시아 청년 160여명을 유치했고, 올 6월에 열린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태국 태권도 단체를 통해 약 300여명의 학생과 가족이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 무슬림 고객의 구매력이 중국인보다 30% 높고 의료관광 등 한국방문 목적이 다양해 '포스트 유커'로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반기에 중동 관광업계 및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참가하는 두바이 관광박람

회에 참가해 전북 알리기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중·소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해 처음 개최해 약 5,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는 '한중 무술문화축제'를 '글로벌 무술문화교류축제'로 급변경해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 등으로 확대했다.

올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고군산군도 선유도 및 군산일원에서 선유 8경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내외 관광객 3,000여명을 유치한다.

관광의 패권이 패키지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됨에 따라 패키지 이외의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고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커 빈자리를 국내 관광객으로 메우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대적인 전북도 그랜드 세일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드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관광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위기를 중국에 편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며 "사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방문의 해 3,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6일 김제 백구농공단지 내에서는 지역 중소 특장차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구축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송하진 도지사,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이건설 김제시장,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 일행.

도, 특장차산업 중심지로 부상

▶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개소식

12월까지 장비 3종 추가 구축 도내 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할 듯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가 관련업체 집적화를 통해 특장차산업 중심지로 부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6일 지역 중소 특장차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김제에 구축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과 송하진 지사, 이건설 김제시장,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는 자동차의 안전검사 및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한다.

그간 지역 중소 특장차업체는 대부분 법정기준(생산 및 검사시설)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기도 화성소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기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른 이동과정에서 사고위험 노출 및 막대한 시간과 경비 소요로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와 김제시는 김제 백구면에 조성한 특장차 전문단지인 주희망 기업과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에 건립요청에 따라 지역정차권과 연대해 국토부에 자기인증센터 구축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건의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공감을 통해 2015년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해 공모에 선정됐다.

그간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상용차산업 육성, 전국 최초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등 특장차산업의 육성조건을 고루 갖춘 전북지역에 자기인증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소업체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자기인증센터는 전북도,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시험동과 연구동을 건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교

통안전공단에서 장비 12종을 구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장비 3종이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개소를 통해 관련 업체의 수급 편의 향상 및 생산성 제고, 연간 1,500건의 호남, 충청, 영남권 특장차 기업의 자기인증 검사 수요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최초 특장차 전문단지인 김제 백구농공단지와 함께 1만 41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도의 기업투자유치, 36억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예상되며 특장차 전문단지의 활성화 및 전북 특장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장차 산업은 상용차 배후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탄소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하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래형 상용차·특장차 개발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美공군 새만금호 투하한 전투기 연료탱크 수거하라"

군산시민단체, "어로작업하는 주민 생명 위험... 한국법 무시하는 태도" 질타

군산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군산시 미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미공군 F-16 전투기가 새만금호에 투하한 연료탱크 수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새만금생태시민조사단 등 총 29개 단체는 "지난달 22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비행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하자 기체에서 연료탱크를 분리해 해상에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만금호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빼앗

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공군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국민과 한국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하된 2개 연료탱크는 각 2m 크기의 1370l로 최대 2740l에 달하는 기름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미공군은 연료탱크를 수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심각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는 "군산 미공군, 새만금 지방환경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을 통해 확인한바 미공군이 현장을 직접 수색한 것은 사건 당일인 22일 하루뿐이며 이날 현재까지 수색을 통한 연료탱크 수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본보는 신문의 날과 주말이 겹쳐 10일까지 휴간합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읍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 공연

송대관	김용임
마틸다 MATILDA	불독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읍시 JEONGUP-SI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